

2분기 GDP 3.3% 성장

소비 지출 안 줄었으나 속도는 둔화

미국 경제가 2분기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와 기업이 관세 변동 속에서도 지출을 유지하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상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두 번째 추정치)에 따르면 4~6월 GDP는 연율 기준 3.3% 증가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3.0% 1차 추정치와 다우존스 전망치 3.1%를 모두 웃도는 결과다.

소비 지출은 1차 추정치 1.4%보다 높은 1.6% 증가로 수정되며 성장률 상향에 기여했다. 또한 연준이 주시하는 '민간 국내 최종판매' 지표도 1.2%에서 1.9%로 상향 조정됐다.

관세의 영향은 무역 지표에 뚜렷하게 반영됐다.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기 전 기업들이 앞다퉀 물량을 비축한 여파로 29.8% 급감했다. 이는 당초 추정치 30.3% 감소보다 소폭 완화된 수치다. 반면 수출은 1.8% 감소에서 1.3% 감소로 수정됐다.

네이버 연방신용조합의 헤더 통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긍정적인 점은 소비가 이전 추정보다 높게 나왔다"고 평가하며 "미국인들은 관세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출을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보다 속도는 둔화됐다. 앞으로는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시화되면서 성장률이 1.5% 안팎의 느린 속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애틀랜타 연준의 GDP나우 추정치는 3분기 미국 경제가 2.2%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 지표는 큰 변동이 없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2.5% 상승으로 기존 추정치와 동일했다. 전체 PCE 물가 상승률은 2%로 소폭 하락했으며, 이는 연준의 물가 목표치와 일치한다.

불법체류 벌금 60억불 추징 방침

하루 최대 1,000불, 국토부 발부 고지서 2만 건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총 60억 달러 이상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국토안보부(DHS)는 약 2만1,500건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이는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도록 압박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소송, 채권 추심, 세금 부과 등 강경한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지난 6월 도입된 새 제도에 따르면,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은 강제 구금·송환뿐 아니라 사실상 벗어나기 힘든 막대한 채무 위험에 노출된다. 한 이민 변호사는 이를 심리전이라고 평가했다. DHS는 연체된 벌금에 대해 이자와 함께 추심 통보를 발송했으며, 세금 환급 압류, 민간 추심 업체 활용, 신용 평가 기관 보고 등을 경고했다.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인 이민자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권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HS는 연체 벌금을 국세청(IRS)에 보고해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DHS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불법 체류자는 지금 떠나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며 "자진 출국 시 벌금을 면제하고 최대 1,000달러의 지원금과 무료 항공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DHS는 광고와 SNS를 통해 자진 출국자에게 "합법적으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진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CBP Home 앱'을 통해 귀국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ICE 요원들이 한 건물 신축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신분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사진=ICE

그러나 이민 변호사 단체들은 이를 "깊이 기만적이고 비윤리적인 속임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상 6개월 이상 불법 체류한 사람은 최소 3년간,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최소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추방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노엄 장관은 행정부 출범 200일 만에 16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미국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추방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머물러온 이민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인도적 체류 허가(TPS) 등 기존의 합법적 보호 지위를 대거 철폐했다. 이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이 추방 위험에 놓였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CBP One 앱'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던 100만 명도 체포·송환 대상이 됐다. 이민 재판 대기자 수천 명은 사건이 기간된 직후 법정 밖에서 이민국 요원에게 체포되기도 한다.

www.faithandhopemedica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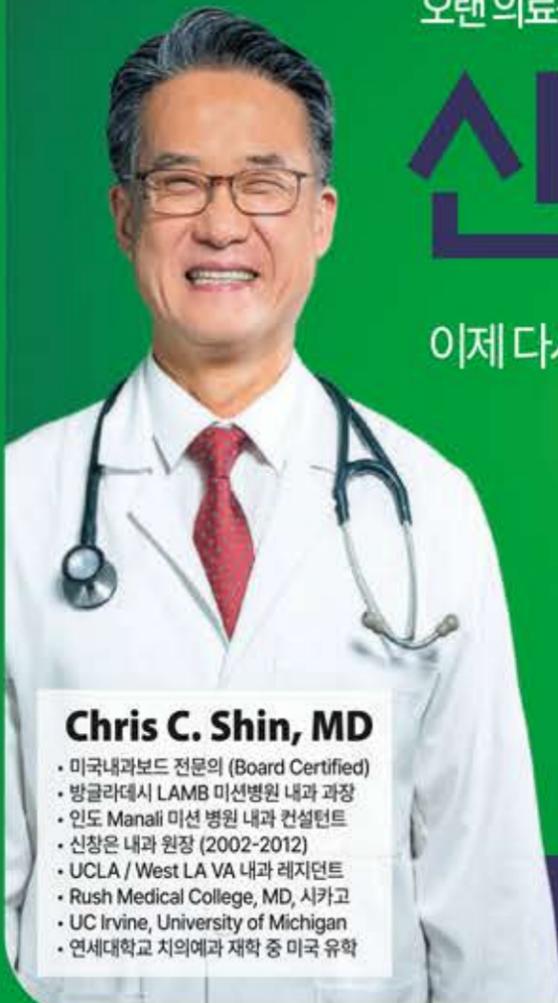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 6-7)

오랜 의료봉사의 경험으로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의사

신창은 내과

Chris C. Shin, MD

이제 다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진료하겠습니다.



Chris C. Shin, MD

- 미국내과보드 전문의 (Board Certified)
- 방글라데시 LAMB 미션병원 내과 과장
- 인도 Manali 미션 병원 내과 컨설턴트
- 신창은 내과 원장 (2002-2012)
- UCLA / West LA VA 내과 레지던트
- Rush Medical College, MD, 시카고
- UC Irvine, University of Michigan
- 연세대학교 치의예과 재학 중 미국 유학

30년 의학 경험과 지난 10년간 아시아 오지에서의 의료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을 선물하는 신창은 내과에서 진료 받으세요!

OPEN 진료 시간

8 AM - 4 PM (월요일 ~ 금요일)



진료 예약

714. 577. 2340

408 S. Beach Blvd. #204, Anaheim, CA 92804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